

청강 권해옥 전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서세逝世

청강(靑岡) 권해옥(權海玉) 전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이 지난 10월 10일 서세(逝世)했다. 향년 91세. 중앙대학교 장례식장 빈소에 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하여 신성범 국회의원, 정대철 헌정회 회장, 김용균 전 국회의원, 권재국 고문, 권영하 대종회 수석 부회장, 권해조, 권오달 종보편집위원, 권영복 안동권씨 서울지역총회장, 권수웅 상임 위원, 권기성 이사,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및 편집국장, 이정자 제55대 사임당(권혁홍 부회장 부인) 등 정관계 인사와 대종회 임원, 친지와 지인 등 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애도했다.



고 권해옥 전 회장

고인의 영결식은 10월 13일 11시 고향인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에서 합천군 의원동우회 장(葬)으로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하여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권영옥 안동권씨 합천총회장, 권영식, 박안나, 김민숙 군의원, 문준희 합천군의원동우회 회장과 회원, 김기철 재경 경상남도 도민회 대외협력담당장과 유족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훈 합천군 의원동우회 총무의 사회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영결식 후 고인의 유해는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376번지 선영에 안장되었다.

안동권씨 대종회 제17대, 18대 회장을 역임한 고인은 이임사에서 "제가 대종회장을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71년 8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공화당 공천을 받아 고향인 합천에서 전국 최연소자(만35세)로서 출마하였는데, 그 당시 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조차도 잘 모르면서 성이 권씨라는 이유로 우

리 집안 동생, 조카, 친척이 출마하였으니 한 표 부탁한다고 동리에서 선거운동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집에서 술을 담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하면서 선거운동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느냐 생각하던 차에 서울에 와서 보니 마침 서울에 안동권씨 화수회가 있어서 당시 영천 출신 전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신 권중돈 의원님과 힘을 합쳐 안동권씨중앙총회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에 권중돈, 간사장(사무총장)에 권해옥이 맡아 모든 족친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인이 안동권씨대종회 제17대, 제18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한 일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뒤돌아보면서 고인을 기리고자 한다.

고인이 2017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9년 추향제에는 600여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족친들이 참여했다.

농동성역화 사업으로 권영철 고문의 협조로 평창공과 학림공의 사적비를 건립하였으며, 고 권오록 고문의 헌성으로 시조 묘소 입구 표지석을 세워 시조님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예산 1억 6천을 확보하여 묘소 진입로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2020년 5월 정기총회에서는 제18대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재추대되었다.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1990년 11월 15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어령 장관에게 행주대첩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여 그 이듬해 3월 14일 문화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

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행사로 격상되지 못하고 고양시 유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2017년 5월 대종회장에 취임한 이후 국가행사로 격상할 것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문중의 임원 등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9년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문화재 관리법 운운하면서 보류되고 말았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권윤도원수행주대접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사항을 공약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당시 권영세 선거총괄본부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6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 오찬희의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드리기도 했다.

권윤도원수 국가표준영정 제작은 20여 년 동안 영정을 도난당하였으나 고향시에서는 복원이나 제작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대종회에서 수차례 공문을 통해 제작을 요청하였고, 특히 권해옥 전 회장은 권중돈 전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과 함께 고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권윤도원수 국가표준영정을 제작할 것을 촉구하여 고향시에서 표준영정 제작 예산 8천여만 원을 책정하고 제작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통과하여 2024년 11월 27일 마침내 국가표준영정(제102호)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안동권씨 최초 국가표준영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고인은 안동권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강했다. 고인은 이임사에서 "대종회장 6년 재임하는 동안 대종회에 매일 같이 출근하면서 열정적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인재를 발굴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안동권씨의 대외적 위상과 명예를 높여 대종회의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술회했다.

2023년 5월 어느 3일 동안 휴일이라 집에서 무려 21번이나 전화로 통화하고 팩스로 주고받으면서 이임사를 작성한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또한 고인께서는 서세하시기 불과 한 달 보름 전에도 전화해서 대종회와 안동권씨 종보를 잘 부탁한다고 하시며 신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세할 줄이야. 지나고 보니 이 말씀이 다 유언이 되고 말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謹輓 靑岡 權海玉 先生 (근만 청강 권해옥 선생)
삼가 청강 권해옥 선생을 애도하며

修路開途功澤遠(수로개도공택원)
길을 닦고 길을 열어 그 공덕과 은택은 멀리 미치고,
崇門篤義德名芳(승문독의덕명방)
문중을 높이고 의리를 두텁게 하시니 그 덕망이 향기롭도다.
淸風一世留高節(청풍일세류고절)
한평생 청아한 바람처럼 고결한 절개를 남기셨으니,
松月長懷舊日光(송월장회구일광)
소나무와 달빛처럼 오래도록 옛 빛을 그리워하리라.

陝川 竹軒精舍 門中 族弟 海克 謹上
합천 죽헌정사 문중 족제 해극 삼가 올림

輓 靑岡 權海玉 會長
청강 권해옥 회장 추모시

德重鄉關久(덕중향관구)
덕은 오래도록 고향에 두텁게 미치고
名淸政路長(명청정로장)
이름은 맑아 정치의 길에서도 길게 남았네
一生留善跡(일생류선적)
한평생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시니
松月共餘芳(송월공여방)
소나무와 달빛이 그 고운 향기와 함께하리라

경남 합천 대병 죽천마을 일족 근상謹上
죽언竹彦 권해옥 權海旭 찬배



권윤도원수 영정



평창공 사적비



학림공 사적비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로 표지석

권행완 편집국장

www.adkimchi.com

전/화/주/문 가능
09:00 ~ 17:00 까지

010.4111.5501
054.842.5500 / 5501
080.057.5500

구매처 바로가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안동명가 김치

영농조합법인

- 안동명가 명품 김치
- 안동명가 명품 맛 김치
- 안동명가 깍두기
- 안동명가 총각김치
- 안동명가 백김치

안동명가김치(안동명가 영농조합법인)
054.842.5500~1 / 080.057.5500 / Fax 054-842-5700
찾아오시는 길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장사리길 54-9
계좌번호 - 농협 351-1331-9550-63(안동명가 영농조합법인)

명문가들이 합기로 소문난 안동 그중 최고의 명가에서 만든 김치를 담는 곳 안동명가

전국대리점 모집
최고의 맛 안동명가!

안동명가에서 맛을 본 고객들의 반복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안동명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명가 김치 회장 권재동, 대표 신연옥